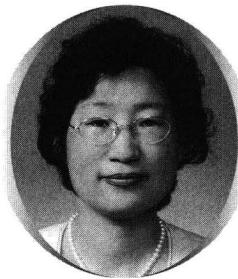


제언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 시킵시다



김희결
한국산업간호학회장
경원전문대학 간호과 교수

유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행사로 한국산업간호협회와 간호학회가 공동으로 ‘사업장 건강증진과 국민건강증진 연계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많은 보건관리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 몇 년 간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매회 거듭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업장이 실제 유해환경 요소가 집중되어 있어 직업성 질환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서 일반질병 유소견자도 급증하는 추세로 대부분이 만성퇴행성질환과 관련되어짐에 따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더욱 요청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업장이 전체 인구의 25%가 머무는 곳이면서 대상 집단이 동질적이고 동일한 체계에 소속되어 있어 건강관리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됨으로써 건강의식이나 생활양식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직 특성을 갖추고 있어, 잘 활용하면 국가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저력을 갖춘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은 건강관리를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분위기와 맞물려 단위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전개하기에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포괄적 건강증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예산과 프로그램을 조달하는데 사업장 혼자만의 역량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해결의 실마리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로 돌려보면, 지역보건법과 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공공기관과 유관기관들의 건강증진 사업을 살펴볼 수 있다. 사업장의 건강증진 사업 목표인 근로자 건강행위의 변화 유도, 생산성의 향상, 의료비의 감소 등은 사업장 수준에서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상호협조 체계로 가동될 때 효과적인 달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가용자원

을 발굴하고 연계해 나감으로써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다.

실제 전임 보건관리자로 배치된 우리 회원들 중에 보건소를 포함한 일차 보건의료 기관, 유관단체 등의 우수한 건강증진 사업을 벤치마킹하거나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장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사업, 근로자들의 개별상담이나 집단교육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춘 새로운 모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건관리자들의 지역별 정기 집담회, 세미나, 보수교육, 학술대회를 통해 관련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되고 사업효과가 증대됨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도 한국산업간호협회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성동구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사업에서 담당 간호사가 지역사회 보건소와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연계하여 건강증진 사업(금연, 절주, 운동, 식이 등)을 추진하였다.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 특성으로 근로자 상호간의 파급효과가 컸음은 물론 공단지역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근로자의 건강행위 수준이 향상되고, 사업장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와 추진력이 조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건강증진 사업을 공공기관, 학교, 사업장, 보건관리대행기관, 단체 등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통합(연계)운영 방식을 제시하는 연구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경우, 주민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초기에 보건소가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홍보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지만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지역단체, 학교, 사업장 등의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업무의 조정과 감독, 통합평가와 재추진 등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지역사회 건강증진 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때 일선 사업장에서의 건강증진 사업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관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